

◇ 특별강연

현대 교육 사조와 산 학교 도서관

■ 이 글은 지난 6월 13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9회 전국 학교 도서관대회에서 교육학박사인 대전대학의 유인종 교수가 행한 특별강연의 내용을 게재한 것임 ■ (편집자 주)

유 인 종
(대전대학 교수, 교육학박사)

학교도서관의 성격면에서 그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보면 (1) 도서 보관소로서의 학교도서관에서 출발하여 (2) 학습의 보조기관으로서의 학교도서관 역할을 하다가 (3) 지금은 학교 도서관이 아동의 학습실 혹은 학습의 현장으로서 학교교육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의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현대교육사조의 변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존 듀이(John Dewey)는 이와 같은 변천은 Copernicus적인 변혁이라고 까지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현대교육사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여 보고 그 다음 그 현대교육사조에 적응 할 수 있는 산 학교도서관을 구상하여 보기로 한다.

1970년은 U.N.에 의해서 “세계 교육의 해”로 설정되었다. U.N.에서 세계 교육의 해를 설정하면서 만인을 위한 평생교육(Life long education for all)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현대교육의 사조가 근본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였던 듀이가 주장하기를 “교육은 생활의 준비가 아니라 생활이다. (Education is life); 또 교육은 어떤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속적인 과정이다. (Education is a Continuous process)라고 했다. 또 교육은 일정한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끝이 없다. (Education never ends and never finishes)라고 했다. 이와 같은 철학적 배경은 UN이 내세운 평생교육의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겠다. 한편 UN의 평생교육을 내세운 것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비판받았던 실용주의 교육철학의 현실적 승리라고 보아야 한다.

이상의 이론적인 근거에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지식의 폭발을 맛보게 되었다. 이 폭발 되는 지식은 10년이 멀다고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일정한 기간동안의 교육만 가지고서는 급진전 하는 사회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은 동창생이 되고 동창생은 다시 학생이 되는 등 평생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도록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다. 한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주는 정규 대학생수

보다 재교육 또는 계속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학교 및 대학원에 등록 되어있는 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또 현대교육 이론과 민주주의의 Ideology는 “개인 잠재능력의 최대한의 신장과 발전” (Maximum Development of Individual Potentiality)이라는 관점에서 한 개인이 태어나면 신분, 빈부, 인종, 성, 지역에 차별받음이 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교육의 민주화 혹은 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육의 민주화가 선진국의 경우엔 일차 세계대전을 전후 해서 초등교육 단계 까지; 제2차 대전을 전후해서 중등교육 단계 까지; 지금은 고등교육 단계에 까지 이룩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선진국은 일차대전을 전후 해서 만인을 위한 초등교육(Elementary education for all) 제2차 대전을 전후해서 만인을 위한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for all) 지금은 만인을 위한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for all)에 까지 성취되고 있다. 후진국의 경우엔 이제야 만인을 위한 초등교육; 중진국의 경우엔 만인을 위한 중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현대교육의 방향은 평생교육과 교육의 민주화 혹은 대중화 즉 “만인을 위한 평생교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선진국이던 후진국이던 이 목표를 향해서 앞을 다투어 줄달음 치고 있는 실정인데 다만 어느 나라가 이 방향으로 더 빨리 가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현대교육은 일정한 기간동안 특수층에게만 주어지던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만인에게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현대교육의 방향이며 또 현실인 것이다. 동시에 형식교육을 담당한 학교와 비형식 교육을 담당한 사회가 협동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다. 이는 또한 사회교육을 강조하는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

또 최근에는 국가발전과 국제적 경쟁의 관점에서 능력 개발의 문제가 중대한 관심사로 대두 되었다. 이 능력 개발이 종래와 같이 특수층에게만 대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만인을 대상으로 되고 있다. 한 예를 들면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은 여성의 능력개발에 언급하여 미개발된 여성의 능력을 “잠자는 보물창고”

라고 표현하면서 전통적으로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여성의 능력개발을 강조하였다. 능력개발의 대상이 만인이 되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예로서 미국의 아폴로 우주 계획을 들 수 있다. 아폴로 11호가 발사되기까지는 2만여개의 민간회사에서 40만명이 동원되어 이룩된 것이다. 이 40만은 모두가 수재급이나 특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 능력에 따라 적재 적소에 자기의 능력을 제공하여 아폴로 계획의 한 부분을 담당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결코 능력개발의 대상은 특수층만이 되어서는 안되고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실용주의 교육철학, 사회의 변천과 민주주의 Ideology, 지식의 폭발, 능력개발의 대상 확대 등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을 하되 평생을 통해서 하여야 된다는 현대교육의 뚜렷한 방향이 제시된 것 같다. UN에서는 이 방향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여 보자는 의도에서 1970년을 세계 교육의 해로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 그 의의가 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대교육의 뚜렷한 방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도면에서는 나라마다 전통적인 학교구조인 계급적이고 소수 정예주의적인 복선형 학교제도를 버리고 민주적인 단선형 학교제도를 취하여 모든 사람을 함께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의무교육의 연장을 통하여 보통교육의 확대와 중등학교의 종합제 그리고 고등교육까지의 대중화는 바로 이 단선형 학교제도를 실현하는 방법이 된다고 보겠다.

중등학교의 종합제 실시의 한 예를 들어보자. 종합학교의 이상은 한 울타리 안에서 과학자나 철학자가 되고자 하는 소년으로부터 시작하여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게 될 소녀에 이르기까지 교육할 책임이 있으며 천재나 수재를 위한 지적인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우수하지 않은 청소년 일지라도 그들에게 각종 작업교육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요컨대 이질적이고 다양한 학생인구를 함께 수용하여 그들에게 알맞고 좋은 교육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현대교육의 방향에 일치되는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면 현대교육사조에 알맞는 산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도 대개의 윤곽이 들어난 것 같다.

첫째, 현대교육사조가 요구하는 산 학교도서관은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 되어야 하겠다. 종래와 같이 소수만을 위한 학교도서관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어주는 학교도서관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사람뿐만 아니라 찾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혜택이 가는 것 우수아에서 저능아에 이르기까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 이르기까지; 잘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잘 못 읽

는 사람에게까지; 철학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그리고 아주 낮은 정도의 직업분야까지 배려되는 최대의 다양성을 지닌 학교도서관을 현대교육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 학교도서관은 사실상 도서보관의 성격에서 탈피해서 학교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본다.

둘째; 산 학교도서관은 학교사회, 나아가서는 그 지역사회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본다. 이 정보는 반드시 시사성이 있는 것 up-to-date 한 것이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의 폭발로 인해서, 과학기술의 급진전으로 인해서,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서 모든 정보는 계속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질 것, 현 것들(out-of-date)에만 치중하게 되면 옛날과 같이 학교도서관의 기능은 도서의 보관역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은 일반도서에 못지않게 정기 간행물을 수집하는데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지식정보의 폭발의 또 다른 예를 들면, 과학계만 보아도 새로운 아이디어, 개념, 응용 등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해마다 1,500만 페이지의 새로운 읽을 거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경제학자의 경우 단순히 자기 분야의 발전만 따라가려고 해도 하루 12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후의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어떻게 하든 이 광범위한 지식정보를 가장 빠르게 수집하여 학교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문제일 것이다.

동시에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기능의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 도서관의 정보교환 활동이 지역사회에 까지 적극적인 영향이 가도록 하는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산 학교도서관은 학습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특히 현대교육에서는 자율학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은 직접 학습의 현장이 된다. 그러므로 학습내용과 독립해서 학교도서관이 있게 된다면 그 도서관은 학교도서관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 교원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학습내용과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가령 학급에서 최근에 문제되어 있는 나라 "캄보디아" 문제가 나왔을 때 교원이나 학생들은 캄보디아를 알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는 학교도서관을 찾아서 알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학생이 교사에게 코끼리는 얼마나 크냐고 물었을 때 막연하게 말(馬)만하다, 소만하다고 답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로 학교도서관의 등물도감을 찾아 얼마 코끼리는 어느 정도이고, 아기 코끼리는 어느 정도라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될 것이다. 이러한 봉사가 바로 학교도서관의 기능이기도 하다. 산 학교도서관은 필히 교육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학교교육의 보조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학교교육의 진취력의 역할을 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커리큘럼 레브(Curriculum Leb) 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넷째, 산 학교도서관은 개별학습과 자율학습의 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의 민주화로 인해서 학교에는 이질 집단이 모이는 곳이 되기 때문에 Class-Room에서 원만한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이 진행되기 힘들다. 이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무시원칙학제 실시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의 개별화와 자율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되는데 학교도서관은 이 문제 해결의 한 장소가 되어야 하겠다. 특히 사회적 교육 제도나 시설이 미비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개별학습의 장으로서의 봉사는 교육의 대중화 속에서 교

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 학교도서관은 위에서 언급된 몇가지 봉사의 기능 이외의 적극적인 지도의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 즉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 도서관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방법, 읽는 방법, 보고서를 쓰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학교도서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입생의 오리엔테이션이나 학과에 포함시키는 방법 등으로 이 지도는 필히 있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이 일반 다른 도서관과 다른 점이 이 지도의 기능이 있는데 있다고도 보겠다.

이상에서 지목한 (1)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도서관, (2) 학교사회 및 지역사회의 정보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3) 학습내용과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학교도서관, (4) 개별학습의 장소를 제공하는 학교도서관, (5) 지도의 기능을 가지는 학교도서관 등이 현대 교육사조 속에서 적용하는 산 학교도서관 또는 변화 속에서 적용하는 산 학교도서관 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나라의 각급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 보는 것이다.

이 달의 도서관 역사

8 월

- 대전문고설립(1913)
- 동래간이도서관 개관(1923)
- 독일서적을 유학생들이 경성도서관에 기증(1923)
- 경양부립도서관 개관(1928)
- 도서관사향강습회 개최 150명이 청강(8.5~15)(1931)
- 보전(普傳)도서관 5층석조로 공사착수(1935)
- 전국도서관장회의(3백여명참가)(1935)
- 국립항공대학도서관 설립(1957)
- A Union Catalogue of Western Social Science Periodicals held by 31 Major Libraries in Korea (Catalogue Series No.1) 출판(1962)
- 제1회 경상북도 도서관강습회 개최(1962)
- Peabody 교육사절단 이한(1962)
- 1일 대한민국 파도정부 공보부 조사국 국제문화과는 국립도서관 별실이다 미국문화연구소를 개설(1947)
- 경상남도교육국학무과 주최로 경남도내 초중고 교사에 대한 사서교사강습회를 부산여자고등학교에서 개최(1960)
- 중소기업은행도서관 설립(1961)
- 시흥문립도서관 설립(1963)
- 경북지구도서관협의회 주최로 16일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및 각급 도서관 직원에 대한 강습회 개최(1963)
- 2일 국립도서관분관 설치내규가 문교부로 부터 인경(1948)
- 5일 부산시립도서관 신축건물 낙성(1963)
- 부산교육국 주최로 12일까지 경남의 중고등학교교사에 대한 강습회를 부산고등학교에서 개최(1963)
- 국회도서관사서국 편 국내간행물기사색인, 1963 출판(1965)
- 8일 한국도서관협회편 전국도서관일람 출판(1956)
- 경남도교육국 주최로 14일까지 경남의 중고등학교교

- 사에 대한 강습회를 부산대신중학교에서 개최(1962)
- 10일 경북여자대학도서관 설립(1961)
- 12일 경남도교육국 주최로 21일까지 경남의 중고등학교 사서교사에 대한 강습회를 마산성지여자중학교에서 개최(1963)
- 13일 삼호무역주식회사도서관 설립(1946)
- 제1차 사서교사자격증 교부(1964)
- 조선(현한국)산업은행도서관 설립(1945)
- 15일 국방대학도서관 설립(1955)
- 장일세 편 장일세식 등양서저자기호표 출판(장일세도서관 실무자료 제1집)(1964)
- 포항시립도서관 설립(1964)
- 20일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도서관규칙규정집출판(1957)
- 22일 서울대학교사범대학도서관 및 공과대학도서관 설립(1946)
- 경북도교육국 주최로 경북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및 자급도서관직원에 대한 강습회를 대구시립도서관에서 개최(1962)
- 23일 국립도서관 임해문고를 9월 8일까지 인천 월미도에 개설(1947)
- 25일 조선서지학회 창립(1947)
- 26일 규장각도서목록 한국본 경·자부 보유를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서 출판(1965)
- 27일 D.D.C 한국어판 번역실의회 편 심진분류법 및 상관색인 개정표준 제15판 출판(연세대학교 도서관학총서 제5집)(1959)
- 28 해군도서관 설립(1955)
- 30일 목포교육대학도서관 설립(1955)
- 규장각도서목록 한국본 사부 제3권을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에서 출판(1965)
- 31일 고양문립도서관 설립(1963)
- 이병목 저 한국의 대학경기간행물 출판(연세대학교 도서관학총서 제15집)(1964)